



스포츠 포커스

“내일은 챔피언” 다섯 소년의 무한도전

승일중 복싱부

‘사라의 링’에서 펼쳐진 화끈한 승부. 한국 복싱 선수들의 타이틀 매치가 있던 날이면 TV 앞에 모이거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온 국민이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뜨거웠던 경기장 열기가 식어버린지 오래되었고, 요즘엔 대회 관계자와 선수 가족들만이 지켜보는 ‘썰렁한 중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재두·박종필·문성길 등 화려했던 전남 출신 옛 복싱 스타들도 이제는 먼지 쌓인 체육사에 묻혀 신세대 들에겐 낯설은 이름이 되어버렸다. 한때 전국에서 최고의 판치를 과시

보였던 지난 12일, 무등경기장 복싱장은 승일중을 비롯 승일고와 호남대 선수들의 실전대비 기술훈련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승일중의 목표는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원투 스트레이트를 뺀 승일중 선수들은 자신감에 가득찬 표정과 함께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지난 1991년 창단된 이들은 10여년 간 중학 복싱의 정상급 판치력을 과시해 왔다. 승일중 송세중 감독은 “지금까지 각 중 대회에서 획득한 메달만 해도 대략 160여개 정도 된다”고 밝혔다. 승일중장구하던 승일중 권투부는 2006년 이후 선수단에 허덕이면서 슬럼프에 빠졌다. 학부모들의 복싱 기

말고있는 문석린(42kg·3년)이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왼손잡이 복서로 1학년때 운동을 시작해 첫 출전한 전국대회서 준우승을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비췄던 문석린은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자신하고 있다. 온몸을 땀으로 적신 문석린은 “1차 목표는 소년체전 금메달이고, 멀게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게 꿈이다”며 가쁜 숨을 내쉬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가 꿈” 지난 중·고신인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박상현(50kg·3년)도 소년체전 메달 기대주이다. 실전경험이 부족하게 아쉽지만 원투스트레이트



승일중 복싱부는 올 전국소년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하루 5시간씩의 강도높은 훈련을 학교 체육관과 무등경기장 복싱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종 대회 메달 160개 ... 중학 정상급 판치 소년체전 금메달 향해 하루 5시간 ‘담금질’ “놀이 형식으로 운동하니 복싱이 즐거워요”

했었던 광주·전남 복싱도 팬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비긴지 종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지만 전라도 복싱의 전통을 잇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작은 주먹으로 샌드백을 두드리며 묵묵히 기술 따를 흘리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있다. 바로 승일중(교장 박원민) 복싱부이다. 봄비가 내릴 듯 잔뜩 흐린 날씨가

피 현상에, 선수들의 중도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막강했던 권투부의 기세가 예전과 다르게 꺾여 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쇠퇴기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를 재도약의 해로 선언한 승일중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기대할 만큼의 정상급 기량을 갖췄다. 5명으로 구성된 복싱팀의 주장

가 주무기인 그가 대전운만 따라준다면 동메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에 글러브를 낀 손동철(57kg·3년)은 아직 기술은 부족하지만 의욕이 강하고 힘이 좋아 꾸준히 기량을 쌓으면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아직은 운동보다 공부 가 더 재미있다는 이석훈은 미래 체육교사를 꿈꾸며 현재까지 글러브를 내

뺀다. 승일중이 올 시즌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동계훈련을 통해 많은 실전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제천 중·천안중·울산 농성중·경남 사천중·전남체육중 등 전국의 복싱 강호들을 찾아 연습경기를 가지면서 내실 있는 전지훈련을 가졌다. 실전감각 못지않게 자신감을 찾은 것도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사기가 오른 이들은 개화해서도 하루 5시간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침 7시30분까지 등교해 1시간 동안 운동장 달리기와 인타벌 훈련 등으로 몸풀기와 체력훈련을 병행한다. 수업이 끝난 오후 2시30분부터는 장소를 무등경기장 복싱장으로 옮겨 4시까지 기술연마에 주력한다. 이렇게 본 훈련이 끝나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1시간을 보낸다. 대회를 앞두고는 저녁에도 개인별 주특기 연마로 1시간씩의 야간훈련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2주에 한번씩은 무등산을 달려 올라가는 크로스컨트리를 통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키워내고 있다. 이렇듯 승일중 권투부가 재도약의 기대를 걸만큼 기량을 향상시킨데는 송세중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

다. 송 감독은 예전처럼 일방적인 명령조의 지시 대신 어린 선수들이 흥미를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상한 지도법을 택한 게 주효했다. “교직원들 성원 큰 힘” 지난 1984년 부임해 26년 동안 운동부를 맡아온 송 감독은 “예전과 달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복싱을 기피하고 있어 팀 운영에 애로가 많다”면서 “처음에 기술부터 가르치면 힘들어 하면서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방법을 달리해 놀이형식으로 복싱을 가르치다 보니 흥미를 갖고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됐다”며 어린 선수들에 대한 자신만의 지도법을 밝혔다. 또한 송 감독은 “박원민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선수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옛날 얼굴의 승일중 권투부는 오는 소년체전 개막을 기다리며 샌드백을 치는 눈발 속에는 미래 한국의 복싱을 이끌어갈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엿보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한메기자 choi@kwangju.co.kr



승일중 송세중 감독은 놀이형식을 통해 복싱을 가르치게 요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강조했다. 승일중 복싱부가 무등경기장 복싱장에서 본훈련을 시작하기 전 준비로 몸을 풀고 있다.



왼쪽부터 송세중 감독·박상현·문석린·이석훈·손동철 선수·김정도 코치.

남성성기능강화제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아내가 개발한 큰놈' and '인기폭발 양코' products, including a diamond ring.

Large advertisement for '탑부동산투자경매' (Real Estate Auction) with detailed tables of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